

“한 사람의 벼, 모두의 벼”

www.hanbeot.org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6. 04/05

통권 314



치매어른신과 나들이 봉사 시작합니다.

“하나의 벚, 모두의 벚”



한 벚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휠체어날개달기
(미얀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아차 장애아동에게 기증)



미얀마방정환(어린이 잡지 기증)
(어린이잡지 1,000권을 미얀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벚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영)



와상장애인 병원이동지원

호스피스 소원여행지원
(말기환자 무료여행)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운영
(고양시 지축동의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

치매, 사라지는 사람들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해 멍청하고 엉뚱해진다고 단정한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실내에 가두고, 도탑던 사람들마저 만나기를 끊는다.

이게 맞는 일일까?

치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 치매는 보통 20년에 걸쳐 느리게 진행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치매 걸렸다면 말기 때를 연상한다. 치매 시작과 마지막 사이, 20년에 걸친 긴 시간의 삶이 있음을 모른다.
- 증세와 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남에게 들은 몇 가지 잣대로 함부로 단정해선 안 된다. 말과 행동이 굵뜨지만 마음먹으면 사진을 찍고 컴퓨터와 SNS를 할 수 있다.
- 치매의 나쁜 증세는 대부분 일시적이다. 길을 잃을 때도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회복된다. 이처럼 나쁠 때와 좋을 때가 있다. 한번 보고 선볼리 낙인찍으면 안 된다.

감성마저 잃는 건 아니다.

- 치매의 대표적인 증세는 기억 소실이다. 하지만 감성과 감각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이름은 잊어도 당신의 모습과 느낌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멍해 보여도 가슴은 뛰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짐이 된 것에 큰 죄책감이 있으며, 소외되는 슬픔과 치매 걸린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 꽃을 대하거나 새와 숲을 바라볼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을 느낀다. 우리처럼.

치매보다 무서운 병

치매보다 무서운 건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다. 실제로 치매 걸린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가족과 친지, 주변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이고, 이로 인해 분리되고 갇히는 노릇이다.

치매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보라!

우리가 가둔 사람들

죄수는 방에 가둔다. 헌 데 죄가 없는데도 가두는 사람이 있다. 치매 걸린 이들이다. 치매 걸리면 먼저 주간보호실, 심해지면 요양원으로 보낸다. 우리나라의 치매 시설은 하나같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꼭 이렇게 해야 할까?

반려견도 산책시키는데

교도소도 하루 한 시간, 마당에서 운동하게 한다. 반려견도 방에만 두면 병 생기고 성질이 나빠진다. 해서 산책시키는 직업까지 생겼다. 하지만 치매 시설엔 산책 시간이 없다.

문 잠긴 치매 시설

유럽 국가의 치매시설은 개방형이라야 허가가 난다. 일본만 해도 치매인 전문여행사까지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간보호실이나 요양원 문은 종일 굳게 닫혀있다.

사람을 가두면

연구자들은 치매인이 실내에 오래 머물면 우울증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기억력 감퇴와 인지 저하, 낙상 같은 사고를 초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학이 말리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열린 공간으로 나가 하늘 보고 꽃 보고, 숨 한번 크게 내쉬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6월부터 치매 어르신
나들이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치매어르신 나들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한달에 하루만 시간 내 주세요.

신청/문의 : 02)393-0661

소록도 봉사, 6월 25일(목) 떠납니다.

원생 나들이와 피부미용 봉사



봉사팀 구성

- **일정** :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5박 6일
(참여하실 봉사자는 일정 중 2박 3일
혹은 3박 4일, 4박 5일 중 선택).
- **봉사회원(10명)** :
피부미용팀 3명(최경림, 김정미, 최성임),
나들이팀 7명(백진양, 한동훈, 이용현,
권영태, 강경애, 조정복)
- **지원 차량** :
2대(휠체어 탑승 소형버스와 승합차)
- **보조기기 지원** :
침대형휠체어 2개, 산소호흡기, 석션기,
휴대용수세식변기, 휠체어 등
- **활동 내용** : 원생 하루 나들이(병상 환자 등),
피부미용서비스
- **참가비** : 2박 3일 5만원, 3박 4일이상 10만원

활동비 기부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권진동(이사) 300,000원, 변상순(소록도간호조무사) 100,000원, 이선영 1,200,000원,
전숙희 100,000원, 백진양 200,000원

※ 이선영 선생님 연락처 알려주세요

■ (기부계좌 : 국민은행 763601-04-155064/한빛재단)



함께 가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위대한 스승의 섬, 소록도로!

봄꽃 따라, 함께 걷기

벚꽃 피어나는 4월, 우리 이용자들이 세 팀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날에 용산어린이정원을 다녀왔습니다. 나름의 속도에 맞추어, 여유롭게. 봄별이 더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봄꽃 다정팀〉

박누리, 오은주, 한효승 씨, 세 여성이 섬세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이루어 즐겼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화사한 얼굴로 사진 찍고, 서로 눈 맞추며 이야기 나누었지요.



〈자유 바람팀〉

오랜 시간 어울려 눈짓만으로도 통하는 심재호, 이기훈, 이운환 씨. 모두 전동휠체어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바람처럼 나비처럼, 어린이정원 곳곳을 여유롭게 돌아다녔답니다.



〈햇살 웃음팀〉

늘 웃음이 크고 호탕한 장윤석, 장용석, 노건욱 씨. 휠체어 한 대와 두 분의 걸음이 어우러져 천천히 걸 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 나누어 다니니 소담스럽고 친밀감이 더했습니다. 〈느리고〉, 〈도담고〉, 〈자유롭게〉. 벚꽃 아래 정감 어린 장면이었습니다.

봉사해주신 분

숙명여자대학교 : 양다연, 황서현, 강민지, 이채원, 이은서, 강민주, 최유리, 박효원, 윤지원, 임소연, 이예은, 최서운, 임하리, 정한나, 박소혜, 정시은, 김민혜, 박가훈, 김시운, 이서영, 우은민, 김하연, 김윤경, 정승원, 전소원, 우승아, 김지은

후원품

- 푸드뱅크: 빵 60개
- 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 빵다방 빵 20박스

'뇌 플릭스' 첫 모임 가져



이웃과 사귀며 치매 예방도 꾀하는 <뇌 플릭스> 모임을 열었습니다. 첫 모임에 20명의 주민이 참석해 성황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전문가 주도로 신체활동과 인지기능을 활성화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펼칠 것입니다.

「정성에 담은 반찬가게」의 선물



우리 동네에 있는 정담푸드(‘정성에 담은 반찬가게’)에서 한부모·미혼모·다자녀 가정 에 아주 맛깔나는 반찬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오늘 만든 겁니다.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영양 많은 건강 반찬이에요.”

정말 아이들도 잘 먹는 맛 좋은 반찬입니다. 정담푸드는 앞으로 매주 한 번 건강 반찬을 선물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지만용 씨의 봄나들이



만용 씨의 기다림

시각과 뇌병변장애를 가진 지만용 씨(2000년생)는 누구보다 봄을 기다렸습니다. 마른 몸매에 유난히 추위에 약한 만용 씨는 겨울 내내 등지에서만 지냈거든요. 물론 시각장애가 있어 도시의 소음과 속도에 적응하기 힘들어한 탓도 없지 않습니다. 만용 씨는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인 시설 ‘라파엘의 집’에서 지내다 4년 전에 한빛등지로 왔습니다. 걷기도 쉽지 않아 도움을 받아야 몇 걸음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만용 씨는 등지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나들이 갈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에 개나리와 벚꽃이 활짝 핀 날, 만용 씨가 휠체어를 타고 월드컵공원으로 나섰습니다.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봄 향기를 맡습니다. 하늘로 향한 얼굴, 입가에 흡족한 웃음이 번집니다. 살랑대는 봄바람이 가슴과 손에 닿습니다. 만용 씨가 고대하던 싱그러운 봄나들이였습니다.

후원해 주신 마음, 고맙습니다. (2월17일 ~ 4월16일)

[개인]

김명규 어머니(이용자) 정월대보름 나물, 김지윤(후원자) 레드향 생활용품,
 김영신(후원자) 사골곰탕, 문은주(후원자) 간식 생활용품, 박운화(후원자) 과일,
 박주용 어머니(이용자) 식재료, 배석현(후원자) 수건, 서민행(후원자) 생활용품,
 손경선, 이경철(후원자) 피자, 여일구(후원자) 신발 아이스크림,
 오상윤 어머니(이용자) 커피 의류, 이주애, 정미란(후원자) 롤케, 이지숙(후원자) 간식
 이진희(후원자) 생활용품, 임창섭(후원자) 생활용품, 임향숙(직원) 생활용품,
 주승찬(사회복무요원) 의류, 진 권(후원자) 믹스커피, 최희경(후원자) 생활용품, 자전거
 함지영(후원자) 간식, 생활용품.

[단체]

당가원 짜장면, 볶음밥, 롯데카드 식재료, 생활용품 만물마트 각종 과일, 식재료,
 마포경찰서 라면, 휴지 부흥세탁소 식재료, 빵이당 빵, 서강어린이집 쿠키 서경어패럴 의류
 염리복지재단 삼푸 서주단협 화장품, 빵 송파맘카페 생활용품, 이지유통 넥워머 피노키오 생닭.

미얀마 - 중고 PC 1대로 생계비 벌 수 있어



컴맹의 미얀마 대학생

미얀마 가서 놀랐다. 대학생 11명과 고교 졸업생 38명을 만났는데 컴퓨터 할 줄 아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 모든 초·중·고·대학에 컴퓨터 교실이 없기 때문이다. 배울 곳은 학원뿐인데, 학원비가 초등교사 월급의 절반이나 되어 아무나 못 배운다. 컴퓨터 1대 값은 교사 10개월 치 봉급.

◀미얀마 컴퓨터 학원(양곤)

컴퓨터를 배우면 돈 벌 수 있다

그래도 도시엔 컴퓨터가 늘고 있어 컴퓨터 할 줄 알면 사무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장혜실 이사장(명지춘혜병원)님이 무료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지어주었고, 작년엔 서울시 지원으로 무료학교 2곳에 컴퓨터 교실을 기증했다.

동네 PC 학원 차려 돈 벌기

내년엔 지방 거주 청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기숙학원을 차릴 계획이다. 여기서 기초는 물론 수리, 조립기술까지 가르친 후 수료생에게 중고 pc 3대를 줄 계획이다. 그러면 수료생이 고향에 돌아가 작은 학원을 차려 돈을 벌 수 있다.



고마운 <사랑의 PC 기증본부>

한뼉의 이러한 구상은 사랑의 PC 기증본부에서 중고 컴퓨터를 기증받기에 가능하다. 이곳에서 작년엔 60대, 올해는 80대를 받았다. 기증본부는 관공서에서 교체하는 PC를 얻어와 수리한 후 빈곤국에 기증하는 고맙기 짝이 없는 단체이다.

와상장애인 가족여행

올해는 경기도 거주 와상장애인들에게



▲부안 격포의 석양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서산 목장

올해의 와상장애인 가족여행은 경기도 장애인들에게 제공합니다. 경기복지 재단과 공동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서해안과 동해안, 설악산, 지리산 등으로 숙박여행을 갖습니다. 한벗에서 처음 시작한 와상장애인 가족여행이 이처럼 전국으로 번져나 가면 좋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와상장애인 여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참여를 북돋고 있습니다.



한충길 선생 영면

한벗의 운영이사과 국립재활원장으로 재직하신 님이 암투병 끝에 지난 5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향년 85세).

님은 1982년, 한벗의 소록도 방문 때 국립소록도병원의 서무과장으로 재직하셨는데, 그때의 인연으로 한벗회원이 되시어 44년 동안 한벗을 사랑하고 도와주신 어른이십니다. 별세하기 전 시신을 기증하시기도

선생의 부드럽고 따스한 품성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님이 즐겨 부르시던 가곡이 가슴에서 울립니다. 선생님의 뜻과 정성을 잊지 않고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미얀마 음악전문학교에 컴퓨터 30대 기증

미얀마의 하나뿐인 음악전문학교, 2~4년 과정의 기숙학교로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합니다. 전국에서 지원한 60명의 학생에게 여러 악기를 가르치는데, 이곳에도 컴퓨터 교실이 없어 4월 말 중고 컴퓨터 30대를 기증했습니다. 한벗의 4번째 컴퓨터 교실 기증입니다.



새 기부회원이 되어 주시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강남순 (백진양 추천). 두정미 (김옥렬 추천).
박봉애 (박봉희 추천). 서용진 (김옥렬 추천)
이수현 (박봉희 추천). 이정자 (최경임 추천).
조병문 (이용현 추천). 최복임 (김옥렬 추천)

특별기부금이 한벗을 복돋습니다.

- 이호균 님 15만원 (휠체어 날개달기기금) □ Bian Jina (미국 교민) 12만원(조정복 소개)
- 이진영 5만원 (방정환기금) □ 최민화 6만원 (고 최준수 목사 손녀/조정복 여사의 동전 기부)

고맙게도 월 기부금을 올려주셨네요!



김보경(제천) 님 1만원→ 2만원(재단본부)
김원애 님 3천원→1만원(미얀마방정환기금)
박신용 님 2만원→3만원(휠체어날개달기기금)
석창록 님 1만원→ 2만원(재단본부)
천성현 님 1만원→ 5만원(재단본부)
최광원 님 1만원→2만원(휠체어날개달기기금)



모란이 피는 봄! 꽃처럼 피어나시기를

26.2월~3월 입금내역. ()안은 개월 수
〈한벗재단〉

미국 교민 기부금 \$1,910 (3월, 4월)				
달라스 : 계 \$1,000		킬린 : 계 \$910		
김윤원 \$400(2)	아리 \$20(2)	강학희 \$40(2)	미영 로사 \$40(2)	전 이사벨라 \$40(2)
장덕환 \$200(2)	이안 \$20(2)	고향미 \$40(2)	배경재 \$80(2)	정 엘리사벳 \$40(2)
스텔라 \$300(2)	루빈 \$20(2)	김은희 \$40(2)	백 수산나 \$60(2)	장지수 \$40(2)
	노아 \$20(2)	김 데레사 \$40(2)	염창순 \$20(1)	조 마리나 \$40(2)
	제콜 \$20(2)	김 헬렌 \$40(2)	유 베로니카 \$40(2)	조용순 \$40(2)
		김정자 \$30(1)	이영란 \$80(2)	최정임 \$60(2)
		김혜중 \$40(2)	이정숙 \$40(2)	카니 박 \$20(1년치)

- ▶ 1,000원 문숙자(2)
- ▶ 2,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1)
- ▶ 3,000원 강희춘(2)
- ▼ 5,000원
-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 공충식(2) 팽안나(2) 팽환상(2) 구자근(2)
- 구재순(2) 김관중(2) 김대현(2) 김동수(2)
-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2) 김시홍(2)
- 김시현(2) 김영희(2) 김유경(2) 김태호(2)
- 김향미(2) 김혜숙(목동2) 나호연(2) 류소연(2)
- 문혜원(2) 박범진(2) 박병건(2) 박상준(2)
- 박정민(2) 박지현(2) 설대호(2) 양윤모(2)
- 엄민애(2) 엄해영(2) 오형균(2) 우종화(1)
- 유경희(당산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 이성호(2) 이승희(2) 이양훈(2) 이용현(2)
- 이재현(2) 이정문(1) 이행남(2) 이호열(2)
- 임정리(2) 장영익(1) 정길순/박지양(2)
- 정해숙(2) 조명순(2) 주우익(2) 최수진(2)
- 최원진(2) 한송이(2) 한진숙(1) 홍영일(2)
- 홍혜경(2)
- ▼ 10,000원
-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 강남순(1/경애) 강석보(2) 강인호(2) 강필규(2)
-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1)
-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 김경석(2) 김교일(2) 김근일(2) 김기석(2)
- 김남중(2) 김동진(2) 김려연(2) 김민수(2)
- 김범수(2) 김보경(제천2) 김상순(2) 김수리(2)
- 김수현(2) 김숙자(2) 김영지(2) 김완섭(2)
-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성(1)
-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영(1) 김은자(2)
- 김재환(2) 김중용/전정원(1) 김준혁(2)

- 김준형(2) 김진원(안산2)
- 김진현/이주원/이도원(2) 김철희(2) 김학철(2)
- 김한영(2) 김 향(2) 김현준(2) 김형식(2)
- 김혜정/이해든(2) 김화중(2) 남기명/유범려(2)
- 노수진(2) 노현욱(2) 도현정(2) 류희수(2)
-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 박경남(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 박영희(2) 박윤미(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 박희정(2) 반종대(2) 방계영(2) 방상호(2)
- 배경미(2) 배재수(1) 배춘숙/김신근(2)
- 백운채(2) 서동범(2) 서미란(2) 서상웅(2)
- 서영란(2) 석지민(1) 석지은(2) 석창록(3)
-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신동혁(2)
- 신성아(2) 신인아(3) 심우진(2) 심지은(1)
-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2) 엄해경(2)
- 오상만(2) 오성곤(2) 오용석(2) 오윤서(2)
- 윤남일(2) 이건수(2) 이금주/최영하(2)
- 이동인(2) 이명옥(2) 이명진(2) 이명철(2)
- 이미지(2) 이민숙(2) 이상일(2) 이성직(2)
-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은주(2)
-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주희(은평2)
-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임경민(2)
- 임동성(2) 임옥자/박병대(1) 임윤아(1)
-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민우(2)
- 전소연(2) 전현규(2) 정규성(2)
- 정미연/김경석(2) 정봉열(2) 정성훈(2)
- 정수연(2) 정수익(1) 정승은(2) 정인기(2)
- 정창교(2)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 조근재(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 조여숙/권희정(2) 조재선(1) 조정복(2)
- 조진영(2) 조학기(3) 지영선(1) 지형근(1)

- 천성현(1) 최강석(2) 최경임(2) 최명선(2)
- 최순희(2) 최태도(2) 최효순(2) 최희환(2)
- 추정일(2) 태효원(2) 하정희(1) 한성진(2)
- 한영주(2) 한혜숙(2) 함형덕(2) 허옥희(2)
-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2) 황연희(2)
- 황정일(1) 황태현(2)
- ▶ 15,000원 김병석(3) 현영돈(2)
- ▼ 20,000원
-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3) 강순화(2)
- 강영철(1) 강희정(2) 김민주(울산1) 김승태(2)
- 김영복(2) 김영자(3) 김인숙(2) 김준희(2)
- 김학준(2) 김혜은(2) 문장렬(2)
- 박지웅/유정영(1) 백봉현(2) 백지웅(2)
- 서성민(2) 신광재(2) 신금옥(2) 신호숙(2)
-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 숙(2)
-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유시영(2)
-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규(2) 이서중(2)
- 이선용(의정부2) 이성재(2) 이정림(2)
- 이주형(2) 이희재(2) 임정순(2) 조윤식(2)
- 최재명(2) 한덕희(2) 한충길(2) 현승혜(1)
- ▼ 30,000원
- 강재철(2) 금재호(2) 김계영(3) 김홍현(2)
- 나호진(2) 민정범(2) 박상우(교양2)
- 박용길(3) 오형근(2) 윤경자(무악2)
- 이관희(2) 이양재(2) 이희달(2) 임용재(2)
- 장해실(2) 정수화(2) 최경희/윤승균(2)
- ▶ 35,000원 박종성(2)
- ▶ 40,000원 서판민(2) 정병배(2)

▼ 50,000원

고명지(2) 김은주(2) 김익규/구자명(2)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2) 신화용(2)
알티엑스포츠(2) 윤지연(2) 이정숙(2)
이종우(2) 최혜자(2)

▼ 10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힐로피아/김유제(2)
강무진(2) 박지연(2) 안성환(2) 유영욱(2)
이승수(2) 조홍준(1)

▶ 150,000원 채진석(2)

▶ 200,000원 오병철(2) 임인경/최홍식(2)

▶ 90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춘혜,2)

〈힐체어날개달기〉

▶ 5,000원 조성우(2)

▼ 10,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이명희(2) 김명석(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희(2) 김용환A(2) 김정애(2)
김정자(1) 김정태(2) 김창복(2) 김태윤(2)
남향숙(2) 민선숙(1) 민혜영(1) 박만수(2)
박복희(2) 박수경(2) 박신자(2) 박옥자(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1) 손기현(2)
신승엽(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여수향(2) 오원희(2) 이가영(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1)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지수(2) 이지혜(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해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군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옥순(2) 전해경(2) 정안나(2)
정애리(1)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1) 정재희/주희(2) 정현묵(3)
조문향(2) 조용환(2) 조혜숙(2) 주필봉(2)
최광원(2) 최유경(2) 최유지(2) 한정민(2)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3)

▼ 20,000원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영숙(2)
김영욱(2) 김옥주(1) 김이태(2) 김일생(2)
김효생(2) 미상(1) 민병임(2) 민선숙(1)
박순신(6) 박신용(2) 오문영(2) 이상희(2)
이해숙(1) 장연우(2) 장혜실(2) 전승완(2)
정경희(2)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정희(2) 최진숙(1) 한광희(2)

▼ 30,000원

(주)송지(2) 김선정(2) 김옥수(2) 이태자(2)
이형재(1) 정재호(2) 최진경(2)

▼ 50,000원

김혜령(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 100,000원 김삼복(2) 박형상(2)

▶ 120,000원 최명숙(2)

〈한벗동지〉

▶ 1,000원 진권(1)

▼ 5,000원

고현우(2) 공아영(2) 권명현(2) 기효순(2)
길현(1) 김계자(2) 김민서(2) 김용락(2)
김인경(2) 김재열(2)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창범(3)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인희(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윤채운(2) 이윤경(2)
이혜란(2) 임정혜(2) 정선희(2) 정정임(2)
최은미(2) 한경희(2)

▼ 10,000원

강순기(2) 강인수(2) 강훈선(2) 고유미(2)
곽영현/장형기(2) 곽우경(2) 구성모(2) 권오준(2)
권지연(2) 김가홍(2) 김규리(2) 김기래(2)
김대영(2) 김도연(2) 김도현(2) 김면봉(2)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아(2) 김미이(2)
김미애(2) 김미진(3) 김병준(2) 김봉주(2)
김상수(2) 김상욱(2) 김상한(2) 김서영(2)
김석겸(2) 김선욱(2) 김선향(1) 김선혜(2)
김성길(2) 김성윤(2) 김세연(2) 김연경(2)
김연숙(2) 김연주(2) 김영승(2) 김영진(1)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A(2) 김인근(2)
김인순(2) 김인숙(2) 김정미(2) 김정석(2)
김정우(2) 김종국(2) 김종애(2) 김지안(2)
김진수(2) 김철호(2) 김태연(2) 김현중(2)
김혜정(2) 김호영(1) 남철호(2) 노선이(1)
노신규(2) 노영진(2) 류재남(2) 박리라(2)
박미숙(2) 박일현(2) 박상정(2) 박원하(2)
박은숙(2) 박장훈(2) 박정신(2) 박정일(2)
박준희(1) 박지원(2) 변기정(2) 서동연(2)
서민향(2)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서형석(2) 서희주(2) 성다혜(2) 송재하(2)
신승희(2) 안영미(2) 양용열(2) 양현석(2)
여운학(2) 여일규(2) 오광진(2)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유윤미(2) 윤정애(2)
윤태훈(2) 이강전(1) 이경혜(2) 이규원(1)
이상수A(2) 이상수B(2) 이상우(2) 이성림(2)
이성숙(2) 이소정(2) 이승연(2) 이승재(2)
이연호(2) 이영금(2) 이영순(2) 이예인(2)
이예준(2) 이원준(2) 이원철(2) 이은서(2)
이재호(2) 이정선(1) 이종욱(2) 이준복(2)
이지숙(2) 이지영(2) 이진희(2) 이태랑(2)
이태환(2) 이해원(2) 이희권(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주(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임호정(2) 장순주(2)
장승희(2) 장은정(2) 장철만(2) 전에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영진(2)
정예진(2) 정완교(2) 정윤성(2) 정은숙(2)
정진하(2) 정한영(2) 조규연(2) 조수연(3)
조순예(2) 조인규(2) 주아인(2) 최경희(2)
최선영(2) 최순우(2) 최은미(서초2) 최은채(2)

최종금(2) 최희정(2) 추지훈(2) 하인석(2)
한지행(2) 허지원(1) 황진숙(2)

▼ 20,000원

강신순(2) 김경란(2) 김미진(2) 김성우(2)
김현정(2) 김희량(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우영욱(2) 원석범(2)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연희(2) 이용현(2)
이정림(2) 조기택(2) 정현주(2) 하복덕(2)
한혜림(2)

▼ 30,000원

▼ 50,000원

곽형우(2) 김간란(4) 김장욱(2) 김종호(2)
박상봉(2) 박운화(2) 이호갑/윤미선(2)
정병권/김문희(2) 조성윤(2) 조항미(1)
홍영미(3)

▶ 70,000원 백승열(2)

▼ 100,000원

권영수(2) 유정자(2) 열림교회(2)
▶ 191,290원 서강어린이집(1)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 10,000원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원주,1)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 2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웅(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 3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 50,000원 김혜원(2)

▶ 70,000원 최수진(2)

▶ 100,000원 오유인(2) 차성안(2)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 10,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박채련(2)
양영춘(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최금열(2) 최수경(2) 한정환(박종미)(2)
홍봉기(2)

▶ 15,000원 김민정(2)

▼ 20,000원 김정훈(2) 김종범(3)

▼ 3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 50,000원

신현관(2) 심진섭(2) 장안태(2) 홍지웅(2)

<미안마어린이합창단>

▶ 3,000원 서지영(3)

▼ 5,000원

강신선(2) 김갑성(2) 김세현(2) 천만용(2)

▼ 10,000원

김광기(2) 김양우(2) 김희정(2) 민성숙(2)
박향림/비영리단체참빛국제협회(2) 성일경(2)
심혜숙(2) 안재은(2) 오세현(2) 원영철(1)
이성순(2) 조천희(2) 최광익(2)

▶ 20,000원 서수진(2)

▶ 30,000원 유근(2)

▶ 50,000원 김현정(1) 주혜란(3)

<고 최준수 기금>

▶ 62,500원 조정복(2)

<호스피스 소원여행>

▼ 10,000원

박봉애(1) 박정선(2) 이수현(1)

▶ 20,000원 김육주(1) 최명숙(2)

▼ 50,000원

김일생(2) 박현성(2) 백진양(2) 한정선(2)

<기부금 보내는 계좌>

한벗재단 본부

국민 763601-04-002564

힐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미안마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미안마어린이합창단

국민 763637-04-004336

최준수 목사 기금

국민 763601-04-175945

한벗동지

국민 577301-01-127870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실

국민 763601-04-078400

고양시지속종합복지관

농협 351-1206-0089-03

통권 314호

퍼낸날 : 2026년 5월 10일

퍼낸이 : 한벗재단

주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전화 : 02)393-0661(대)

핸드폰 : 010-6747-0661

이메일 : 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 : www.hanbeot.org

임원/법인이사

백진양(대표) 권진동,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유시영, 채진석, 최명숙, 이송일

감사 : 강만희, 김훈

운영위원 : 임춘규(위원장), 조재선(부위원장),
강제숙, 김영균, 이승우, 장혜선, 청년한벗,
한동훈, 현승혜

부서별 연락번호

한벗동지 : 02)336-3100

주간보호실 : 02)713-5050

지속복지관 : 02)381-8938

한국힐체어기증본부 : 02)713-1005

재정보고 (26.2월~26.3월/2개월 합산)

단위 : 원

		입 금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기부금	정기기부(재단)	12,549,000	인건비	급여, 사회보험	9,854,787
	특별기부금	1,970,000	시설지원	동지, 주간보호, 지속	5,445,000
	미국기부금	2,806,120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6,817,631
	동지/주간	5,445,000	업무비	직책 보조비 등	1,546,000
	날개달기	7,270,000	간행비	소식지 간행, 우송	1,809,200
	방정환 기금	1,550,000	공과금	보험료 등	159,980
	미안마합창단기금	599,000	사업비	힐체어날개달기	3,980,000
	고 최준수 기금	125,000		방정환 기금	2,214,000
	호스피스소원여행	450,000		한벗투어	1,630,000
	소록도 봉사	300,000		소원여행	644,300
임대수입	원룸보증금.관리비 등	10,678,715		미안마 유아차 기증	505,700
외부지원	공동모금회	505,700		기타사업비	2,871,266
사업수입	힐체어 대여 등	325,000	잡지출	이거호 미지급 급여등	19,211,425
기타	잡수입	800,000		재단 소송비	3,300,000
차입금	(결손금)	16,951,895	상환금	이자	2,336,141
	총 계	62,325,430		총 계	62,325,430

※ 위 보고는 시설을 제외한 재단본부 재정사항입니다.



파랗게 돌아나는 풀과 나뭇잎이
행복하게 합니다.

풀밭에 앉은 엄마와 딸의 모습
우리도 행복합니다.

혼자 사는 치매인이 쓴 수기



영국의 여성 치매인 <웬디 미첼>이 쓴 수기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치매 걸리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속설을 멋지게 깨부순 내용이다. 58살에 치매 진단받은 그녀는 10년 동안이나 혼자 살아냈다. 치매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많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녀의 결심

웬디 미첼은 딸 둘을 키우는 이혼녀. 청소일 하다 병원 사무직으로 20년째 근무하던 2013년, 치매진단받고 퇴직한다. 이후 딸들의 짐이 안 되려고 독립해 치매와 같이 살기 위해 애쓴다.

그녀를 덮친 치매

길을 잃고, 표지판 글씨를 못 본다. 칫솔질과 약 먹기를 비롯해, 머리 감기와 커피에 설탕 넣기를 잊는다. 계단에서 잘 넘어지고,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말 알아듣기 힘들어진다.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딸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혼자 살기

침실과 거실, 부엌 곳곳에 메모를 붙이고, 화장실 문에 표시한다. 핸드폰 알람 울려 약 먹고, 길 잃으면 도움을 청한다. 영상통화로 사람을 만나고, 컴퓨터로 정보를 찾고 자판으로 글을 쓴다. 행복했던 때의 사진을 걸어놓고 마음을 추스르며,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한다. 수없이 실패하고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치매도 그녀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그녀는 말한다

‘치매 걸려도 혼자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세요. 보통 사람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뇌는 큼니다. 기능 일부가 손상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유럽에선 치매인의 1/3이 혼자 살고 있다).

웬디 미첼이 쓴 책(「내가 알던 그 사람」,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을 요약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원하시면 보내드립니다. 02-393-0661